

## 7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루비니 한마디에`..다우 1.18%↑</p>	<p>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간)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의 리세션이 올해말까지 끝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95.61포인트(1.11%) 상승한 8,711.8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13포인트(1.19%) 오른 1,885.03을, 대형주 중심의 S&amp;P 500 지수는 8.06포인트(0.86%) 상승한 940.74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장중에는 혼조세를 지속했고 JP모간체이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간 실업수당 지표 개선 등이 호재로 작용한 반면 단기급등 부담속에 CIT 그룹 파산 우려감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가 악재로서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장마감 2시간을 남기고 뉴욕증시는 반등을 시도했음. 우울한 경제 전망을 많이 내놓아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리세션이 금년말까지 끝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투자심리에 불을 지폈고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날 프랑스 방문중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속성 있는` 신호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p>
<p>루비니 교수 "美 리세션 금년말 끝난다"</p>	<p>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칠레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 "미국이 금년말까지는 리세션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밝혔다.</p> <p>루비니 교수는 다만, 미국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은 지났지만, 고용시장과 산업생산, 주택시장은 상당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초까지 2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주간 실업수당 지표 양호</p>	<p>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11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6만 9,000건(수정치)보다 4만 7,000건 감소한 52만 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은 결과이고 당초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55만 3,000건이 예상되었음. 계절적으로 예상됐던 자동차업종의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지표가 왜곡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물론 투자자들은 이날 고용지표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음.</p>

제목	주요 내용
<p>중증시, 일본과 `시가총액 2위` 싸움 재개</p>	<p>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시의 시가 총액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과 은행의 대출 급증 영향으로 올해 75% 급등하면서 3조2,100억달러를 기록, 일본(3조2,000억달러)을 넘어섰음.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앞서 지난 2008년 1월4일~24일까지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을 상회한 바 있음.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7년 10월의 신고점을 기록하기까지 2년 동안 3배 상승했으나, 같은 해 11월 이후 72%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은 급감했었음. 중국 증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은 비싸지고 있음.</p>
<p>삼성·현대차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p>	<p>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동차용 반도체 컨소시엄이 오는 2013년까지 설비투자에 4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음.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현대오트넷, 씨엔에스(038880)테크놀로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컨소시엄은 이같은 설비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 지경부 관계자는 "제출한 설비투자 계획 중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의 팹 투자 비중이 가장 크다"며 "이밖에도 각종 후공정 설비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p>
<p>백화점 명품 매출 감소</p>	<p>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6월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쳤음. 올 2월 신장률이 47.7%까지 올라간 이후 4달 연속 줄어든 것. 명품 매출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건 최근 1년 사이 처음.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인상, 외국인 구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명품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 한편, 백화점 6월 매출은 여름 바캉스 시즌과 더운 날씨, 그리고 세일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1.4% 매출이 감소.</p>
<p>STX조선해양, 1800억 규모 BW 5조원 물려</p>	<p>16일 공동주관사인 대우증권은 개별배정방식으로 진행된 1,800억원 규모 STX조선해양 BW 청약 결과 4조9,528억원의 자금이 물렸다고 밝혔음. 500억원을 배정받은 대우증권에는 1조6,928억원이 물려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2012년 7월20일 만기인 STX조선해양 BW는 2% 표면이자율과 6% 만기이자율이 적용.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1만5450원으로 오는 8월20일부터 권리행사 가능.</p>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